

광주문학상에 윤삼현·박형동·강경화 작가 선정

19일 광주문학관서 시상식 1000만원씩 창작 지원 예정

광주시는 2024 광주문화예술상 문학분야 수상자로 윤삼현 작가, 박형동 시인, 강경화 시조시인 등 3명을 선정, 19일 광주문학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주 문화예술상 문학분야 심사위원회를 열어 박용철·김현승·정소파 문학상 수상자로 이들 세 작가를 각각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문화예술창작지원금 1000만원과 광주시장상 상패가 수여된다.

광주문학상은 광주 출신 시인 박용철·



윤삼현



박형동



강경화

원 및 순천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윤 작가는 무등일보·전남일보 등 언론사 신춘문에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동시·동화·수필·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활동을 통해 한국 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김현승문학상 수상자인 박형동 시인은 문학춘추 신인상을 받아 시인으로 등단한 후 30여년 동안 '아내의 뒷모습', '바보의 노래' 등 창작활동을 했다. 광주경신여자고등학교 교사로 명예퇴직한 박 시인은 전남문인협회장, 한국문인협회

이사를 역임했고 전남문학상, 전남도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정소파문학상 수상자인 강경화 시조시인은 작품 '부화'로 시조시학 신인상을 받아 문단에 등단해 개인시집 '사람이 사람을 견디게 한다', '메타세콰이어 길에서'를 발간했다. 금호문화 우수상, 광주 전남무등시조문학 우수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광주문화예술상 문학분야는 박용철·김현승·정소파 문학상을 통합 제정한 것으로 시·소설 등 문학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문인에게 수여하고 있다. 2000년 제정돼 2022년부터 광주시가 시상하고 있다. 노병하기자

구립도서관 책정원 개관 첫돌 행사 동구, 20일 북토크·타임캡슐 등

광주 동구는 구립도서관 '책정원 개관 1주년'을 맞아 작가 초청 북 토크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한다.

개관 1주년 행사는 북 토크, 음악회, 독서 이벤트 등 주민들과 함께 축하하며 즐기는 자리로 꾸려질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는 북 토크('틈만나면 세계 일주' 권보선 작가), 문화가 흐르는 낭만 연구소(클래식 등 공연), 축하 케이크 커팅식, 책정원 타임캡슐 등이 있다. 또 필사 전시, 팝업북 프로그램, 테라리움 이벤트, 삼행시, 추억의 뽑기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특히 책정원 타임캡슐은 '2033년 나의 모습'을 담은 소망 엽서를 책 모양의 타임캡슐에 봉인 후 책정원 한쪽 공간에 보관한다. 개봉은 책정원 개관 10주년인 2033년 12월에 할 예정으로 소망 엽서를 작성한 시민들을 초대해 나의 모습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26일 개관한 책정원은 기존 딱딱한 분위기의 도서관 개념을 탈피하고 음악과 향기, 정원처럼 감각적인 요소를 더해 조성한 문화공간이다. 개관 이후 1년 간 16만명이 방문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책정원 개관 첫돌을 맞아 다양한 축하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가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시설이자 독서문화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기자



"코어왕·하체왕·체력왕 뽑아요" 남구, 27일까지 이벤트 진행

"스쿼트와 플랭크, 점핑, 사이드스텝, 스트레칭까지 5개 종목 최고 운동왕을 뽑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운동 능력을 마음껏 뽐내주세요."

광주 남구가 인공지능 및 동작 인식 기술 기반의 리얼PT 운동 프로그램을 활용해 관내 최고 운동왕을 선발한다.

남구는 AI 기반 스마트 운동처방 프로그램인 리얼PT를 통해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과 건강 수준을 높이고자 오는 27일까지 '도전 운동왕' 이벤트를 진행한다

리얼PT는 스마트폰 화면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트레이너의 동작을 따라 하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최첨단 운동 프로그램이다.

남구는 지난 6월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해 관내 주민들에게 자세 교정과 함께 체력 테스트 등을 위한 여러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AI 기능을 탑재한 하드웨어를 통해 참가자의 움직임에 맞는 운동처방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5가지 종목의 운동왕을 선발한다. 스쿼트와 플랭크, 점핑은 각각 코어왕과 하체왕, 체력왕을 뽑기 위한 종목이다. 사이드스텝과 스트레칭은 인지력왕과 유연성왕을 가리기 위한 테스트다.

도전 운동왕 이벤트는 남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리얼PT 앱을 내려받은 뒤 한가지 종목을 선택해 도전 운동왕 이벤트에 도전장을 내밀면 된다.

테스트는 난도에 따라 초·중·고급 3가지로 나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체력 수준에 맞춰 한가지 난도를 선택한 뒤 종목별 12단계 미션을 완수하면 된다.

이벤트는 단계별 임무를 먼저 완수한 주민 50명을 선착순으로 뽑는다. 당첨자에게는 오는 30일과 31일 사이에 무릎담요가 제공된다.

남구 관계자는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2024년도 「치매 전문 자원봉사단」 성과공유회



광주 서구는 18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치매전문 자원봉사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광주 서구 제공

서구, 치매전문 자원봉사단 성과 공유회

치매환자 말벗봉사 등 눈길

광주 서구는 18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치매전문 자원봉사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서구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치매 예방과 관리에 힘써온 3개 봉사단체의 자원봉사자 90여명이 참석해 그동안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파랑새 메신저'는 2021년부터 치매환자를 위한 말벗 봉사 활동을 통해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올해 말벗 봉사과 인지 재활 활동을 650여회 진행하며 치매 환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을 줬다.

또한 올해 초 치매안심마을 주민 40명으로 구성된 '기억해온단'은 인지정서지원전문가 1급 교육 과정을 이수해 총 32명이 수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디지털 인지훈련을 통해 치매 예방을 돕는 '시니어 디지털 인지도치 봉사단'의 활동도 두드러졌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올해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은 지역사회 치매예방의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며 "앞으로도 치매 걱정 없는 살기좋은 착한도시 서구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내년에 치매안심마을을 추가로 지정하고 봉사단을 더욱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치매 예방과 관리에 동참하고자 하는 주민은 서구 치매안심센터(062-350-4780)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이 기자

광산구, 광주 유일 조직·인력 운영 우수 지자체 선정

행안부 주관 평가 2년 연속 선정 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광주 광산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올 한 해 조직, 인력 운영의 효율을 높인 25개 우수자치단체를 발표했다.

정원을 감축·동결하면서 기능이 행정 수요에 맞게 적극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한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광주 자치구 중 예선 광산구가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광산구는 '매년 정원의 1%를 재배치' 토록 한 정부의 인력 운영 방안에 맞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으로 공무원 정원을 동결했다.

특히 외국인 지원, 기후위기 대응, 산단 관리,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2022년 51명(4%), 2023년 13명(1%), 2024년 16명(1.23%) 등 3년간 총 80명(6.23%)의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목표한 실적을 초과 달성했다.

광산구는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시민 중심의 구정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2025년 1월1일자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문화교육국, 도시건축국 2개국을 신설하고, 치수방재과와 시설지원과를 설치해 치수대책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비기

술부서 지원 업무를 일원화한다.

또 민선 8기 역점 추진 중인 지속가능 일자리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을 신설한다.

또 융·복합화 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복수 직렬을 대폭 확대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탄력적인 인력 운영 기반을 조성한다. 4급 서기관 직위는 복수 직렬이 2개에서 9개로, 5급 사무관 직위는 복수 직렬이 46개에서 61개까지 늘어난다.

4·5급 비율은 낮추고, 6급 이하 비율은 90.3%에서 92.7%로 상향 조정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해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양성평등 정책 우수기관 선정 북구, 광주 유일 중기부 장관상

광주 북구는 '2024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여성신문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정부 부처가 후원한 양성평등정책대상은 우수한 성평등 정책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한 유공 기관을 발굴하고자 지난해부터 시행된 평가다.

전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는 △성평등 추진 기반 △성평등 대표 정책 등 2개 부문을 심사했다.

북구는 본 평가에서 '양성평등 중장기 계획의 체계성', '성별영향평가의 충실성', '여성친화도시 민관 네트워크 협력도' 등을 인정받으며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효율적으로 구축했다고 평가받았다.

특히 '여성친화마을 기반 마을기업 설립 및 여성 일자리 창출 사례'를 비롯해 '여성 상인·주민 중심 골목상권 브랜드 개발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 '여성행복지원센터를 통한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은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정책으로 호평받았다.

이에 북구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특전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받게 됐다. 윤준명 기자